

기업결합규제 여부에 대한 경제학의 대립

본 협회 조사부

현실적인 경제운영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규제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간에 의견의 대립과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대립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학자들은 경쟁을 통하여 시장메커니즘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 경제적인 효율성은 실현될 수 있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활동이 시장메커니즘의 기능을 전부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규제가 없으면 경쟁균형이 현실의 경제에서도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규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현실의 경제에서는 시장메커니즘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정책적인 주장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학상의 논쟁은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규제 여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을 요약한 것이다.

1. 전통적 산업조직론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확립된 산업조직론에서는 시장구조가 기업구조나 시장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독과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각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므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집중도가 높은 사업에서 이익률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지배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자들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는 합병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2. 시카고학파의 대두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 합병규제에 대한 전통적 산업조직론은 시카고학파의 학자들에 의해서 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높은 집중도가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어떤 시장에서 높은 이윤율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카고학파는 전통적 산업조직론이 중시한 진입장벽의 이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모든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규참입시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진입장벽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하는 것은 정부규제 등 제도적 요인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상의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참입이 용이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경쟁메커니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입과 퇴출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신규참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은 초과이윤 없이 완전경쟁의 균형가격 수준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카고학파는 기업의 합병·매수는 일종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준다고 주장한다. 즉, 효율적인 기업에 의하여 합병·매수가 이루어지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시장의 압력에 의하여 도태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기업의 합병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규제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리고 전통적 산업조직론에 대한 다른 형태의 비판도 있다. 이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합병에 대한 반경쟁적인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 가능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에는 합병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제 전체적으로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리는 거래비용의 절감, 이윤의 증대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비효율적인 조직형태를 고집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조직형태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엄격한 기업결합규제는 오히려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시카고학파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시카고학파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학적 논쟁에서 시카고학파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도 증폭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현실의 경제상황에서 시카고학파가 전제로 하고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과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경제학의 발전은 종래의 비용절감산업이나 공공재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시장실패와 더불어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시장메커니즘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지배력에 관한 논리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논점은 기업의 이윤추구는 신제품 개발이나 원가를 절감하는 신기술·신공정의 개발 뿐만 아니라 광고선전·마케팅·대정부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렌트-씨킹)에 자원을 투하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합병을 통해서도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고 「렌트-씨킹」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병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다각화나 합병·매수는 기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에서는 다각화한 대기업이 전문화된 소기업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다. 합병·매수의 경우도 부정적인 면이 우세하였다.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만을 본다면 기업의 다각화나 그 실현수단인 합병·매수가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이윤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카고학파를 비판하고 현실의 경제는 시장메커니즘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기업결합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소속하고 있는 학파를 포스트시카고학파라고 칭한다.

이들은 각개의 기업결합 사례에서 반경쟁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앞으로의 과제

기업결합규제 여부에 관한 경제학자간의 의견대립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어떠한 기업결합이 반경쟁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의 여부는 시장점유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장메커니즘의 완전한 기능발휘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직도 경제학은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하는 데 만족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카고학파와 같이 경쟁균형을 전제로 하면 이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단순화된다. 그러나 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한다면 그 분석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날까지도 아직 단순화된 가정하에서만 불완전경쟁이나 불완전정보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기업결합규제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실증방법의 개발과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정**